



2022년 7월 10일(제1096호) 연중 제15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오늘 복음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인 가족분들은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잘 실천하고 계시는지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 많은 부족함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도, 내 주변의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만 하기에, 오늘 복음은 저에게, 또 우리에게 조금 무겁게 다가오는 듯합니다.

신학생 시절, 한 피정에서 지도 신부님이 했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한 달이라는 긴 피정을 마치는 순간 신부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제는 감았던 눈을 뜨고, 내 옆 사람들을 볼 차례입니다. 피정 동안 하느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다져놓았다면, 이제는 그것을 마음에 품고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향해 그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하느님과 ‘나’라는 존재는 수직적 관계이며, 나와 내 이웃들과의 관계는 수평적 관계임을 떠올려 봤습니다. 이 두 관계를 같이 놓고 보면 십자가가 됩니다. 곧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겐 어찌면 하나의 십자가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아는 우리에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도 좋겠습니다. 나 자신은 정말 진심으로 온 마음과 정신을 다해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또는 내 가족과 지인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있는가? 어느 누구도 이 질문에 당당하게

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명 큰 아픔이 있고, 희생이 있고, 우리 각자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곧 우리 신앙의 목적인 구원, 곧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분명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과 사랑을 주고받는다든 것과 나와는 이렇게나 다른 너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의 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단순히 계명만을 주며 ‘사랑해라’ 하고 무관심하게 방관하는 하느님이 아닌, 그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또다시 희망을 주고 나아갈 힘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희망할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마침내 그분의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나에게 다가오는 많은 이들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를 통해 하느님을 향한 사랑을 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비록 십자가처럼 무겁고 힘든 것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줄 기쁨을 생각하며 신앙인다운 마음으로 이를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장진환(프란치스코) 신부
소송(제17보병사단) 성당 주임

제 1 독 시

신명 30,10-14

회답송

◎ 가난한 이들을, 하느님을 찾아라. 너희 마음에 생기를 돋우어라.

제 2 독 시

콜로 1,15-20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입니다.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

복음

루카 10,25-37

영성제송

주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집

첫 번째 시집

예수 마리아 요셉,
마카오에서, 1842년 4월 26일

르그레즈와(Legregeois) 신부님께

우리가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었을 때, 얼마나 외로워하고 애달파하였는지를 회상하시면, 제가 신부님의 여행에 대하여 얼마나 조바심을 가지고 염려하였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저는 하루라도, 아니 단 몇 시간이라도 신부님을 생각하지 않고 지낸 일은 없다고 고백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쓰라림을 하느님을 위해 참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위로이시요, 우리의 희망이시며, 우리의 원의이시니,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죽습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천사로 하여금 경애하올 신부님을 무사히 인도하셨고 또 평안히 보호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신부님을 통해 최대의 공경심과 충성심을 우리의 최고 목자이신 교황님께 바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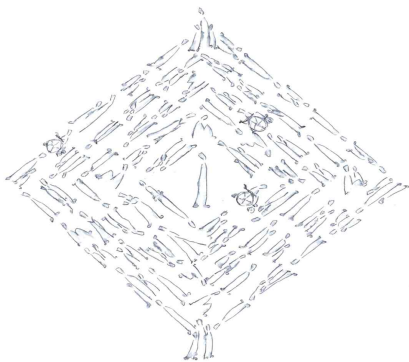
이곳 우리 주변에 일어났던 일에 관해서는, 다른 것은 생략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서 떠나고 또 마침내 저의 유일한 동료 안드레아(김대건)와도 떨어져 있는 저는, 작은 방에 외톨이로 남아 있습니다만 하느님과 홀로 있기가 소원입니다.

신부님이 떠나신 다음 우리 조국으로부터는 아무런 소식도 들려온 것이 없습니다. 안드레아는 매스트르(Maistre) 신부님과 함께 프랑스 군함을 타고 조선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군함이 마닐라에 기항한 후 아직 그 목적지를 향해 떠나지 못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파보리트(Favoritte)라 불리는 다른 군함을 타고 드 장시니(de Jancigny)씨와 함께 조국으로 가기로 되어 있어서 하루하루 그 군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집』 발췌, 청주교구 양업교회시연구소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이들 사이에서

다치고, 아픈
이들 사이에서
하늘을 봅니다.
슬프고, 지친
이들 사이에서

당신을 찾습니다.
이들 사이에
하늘이 담길 수 있길.

상화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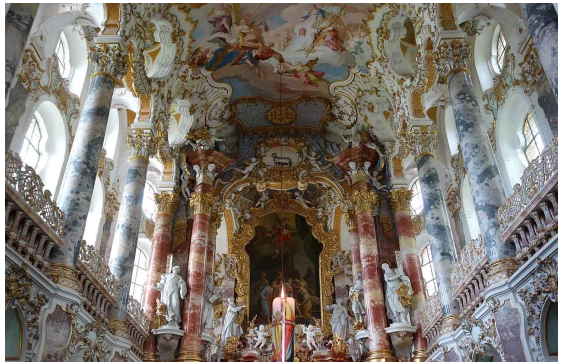
뷔스교회



1754년경 제작
슈타인 기텐(빌펠트 쉐기우 지역) 위치

17세기, 18세기 독일 남부 지방(바바리아 지역)은 전 유럽을 강타한 종교개혁(교회 내부 장식을 제거)에 반하여 보다 화려하고 신자들을 압도하는 내부 장식을 하였는데, 단지 화려하게 꾸미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난하고 문맹인 농부와 일반 신자들이 성당에서 천상을 경험하고 신비로운 목상을 가능하게 하려는 의도가 강했다.

조각과 회화 그리고 건축물의 경계가 사라진 내부 장식 속에서 신자들은 고단한 현실이 아니라 천상의 행복을 잠시나마 맛볼 수 있었다. 본 성당은 순례자 성당으로 수난(제단)과 부활(천장)의 예수님이 조각 및 회화로 제작되어, 수난 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미사 동안 우러러볼 수 있었다.



김은혜(앨리스넷)

교 구 소 식

군중부원회 회임을 위한 미사 - 연중 제15주일: 해병대요람 이환신 신부

◆ 교구장 등장

- 총용(제8군단) 성당 사목방문

때: 7월 10일(주일)

- 해군 이냐시오 모임

때·곳: 7월 11일(월) 17:00, 군중교구청

- 국장회의

때·곳: 7월 12일(화) 16:00, 교구청 회의실

“상제상시로 기뻐하는 삶” - “니를 먹는 사람도 니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요한 6,57)